

공동체 소식

사순시기 안내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은 고행 자체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을 맞이 위해 집 안팎을 깨끗이 정리하듯 죽음과 부활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기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고 성화하는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수난에 적극 동참한다는 뜻에서 전례 중 기쁨을 상징하는 요소인 대영광송과 알렐루아를 바치지 않습니다.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꿉니다. 그러나 사순 제4주일에는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맞본다는 의미에서 장미색 제의를 입기도 합니다.

주일미사 35분전 십자가의 길 기도를 바칩니다. 사순기간 개별적으로 매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권장합니다. 아직까지 고해성사를 보지 못해 하느님과 화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사순시기에 고해성사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합동판공성사는 3월 31일(일) 미사 전 10시30분~10시 55분까지 있습니다.**(김상현 사도요한 신부님)
금육과 단식 규정은 성당 입구 게시판 참조 바랍니다.
Rice bowl (하루 \$1씩 40일) 가져가셔서 부활전에 제출 바랍니다.

One Faith One Family One Future In CHRIST

캠페인 기도문을 미사 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캠페인 설명은 지난 주보와 함께 배포된 교구장 주교님 편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영문/한글번역본)

구역장 안내

- 1구역장 김명희 리드비나 2구역장 김시연 엘리사벳
- 3구역장 최선윤 마리아 4구역장 차상욱 펠릭스

주일학교 교리 안내

주일 오전 10시-10시 30분 나자렛관에서 시작합니다. 10시 30분 이후 성당으로 이동하여 매일미사에 나오는 주일 영어독서와 영어복음을 함께 읽습니다. 매일미사책 준비 바랍니다. Camp Tekakwitha 주일학교 여름캠프 신청바랍니다. (캔사스 대교구 주관)

성인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시작안내:

3월 10일(일) 오전 10시-10시 30분 성당 지하 식당에서 교리반 시작합니다.

전례부 회합: 10일(일) 오후 1시 나자렛관

2019 교무금 책정 가정(신앙생활봉헌서)

***고맙습니다. 교무금은 의무입니다.**

고영방 스테파노, 홍순익 마르티노, 정수한 베드로, 이영민 엘리사벳, 김태중 예레미아, 정석원 라파엘, 문석찬 요셉, 박계숙 박헬레나, 박옥희 헬레나, 강승호 아오스딩, 조지연 마리아, 박태주 로마노, 김정원 베드로, 차상욱 펠릭스, 김화년 요안나, 안병환 발렌티노, 김대연 요셉, 현교정 돈보스코, 박희영 카타리나, 김호원 요한, 조진환 베드로, 정연숙 막달레나, 차호섭 요셉, 김동술 세례자요한 (24가정)

구역모임 안내:

- 2구역: 23일(토) 저녁 7시 문석찬 요셉 가정
- 4구역: 23일(토) 저녁 7시 이우영 가브리엘 가정

맨하탄 공동체 미사: 23일(토) 오전 11시

전례 성가

	시작	예물	성체	파견
금주	115	212	180	123
차주	117	511	166	122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대연(요셉)	고영방(스테파노) 김명은(안젤라)
차주	박태주(로마노)	김병철(베네딕도) 김경희(스콜라스티카)

주일미사 복사

	향복사	시중복사
금주	고평원(프란치스코)	정예진(한나) 김지안(요한)
차주	차민서(임마누엘)	김정원(안젤라) 김정훈(로베르도)

헌금 봉사자

금주	이우영(가브리엘), 차상욱(펠릭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아), 강승호(아오스딩)

애찬 봉사자

금주	5조: 김말자, 박계숙, 유계화, 김수연
차주	6조: 문문주, 장유정, 김희진

미사 후 뒷정리에 함께 하는 아름다운 손을 하느님께서 기다리십니다.

매월 첫 주일 성당지하 청소합니다. 많은 협조부탁드립니다.

본당연락처 korean1481@gmail.com

+미사시간

주일: 11:00 AM
화/수요일: 7:30 PM
목요일: 10:00 AM
첫 토요일: 10:00 AM (신심미사)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천주교 캔사스 한인성당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나자렛 교육관: 8901 Haskins St. Lenexa, KS 66215

주보 편집 : 조진환 베드로 jinhwan.jo@gmail.com

주임신부 박종수 펠릭스
pjsfelix@gmail.com

회장 고영방 스테파노
(913) 227-90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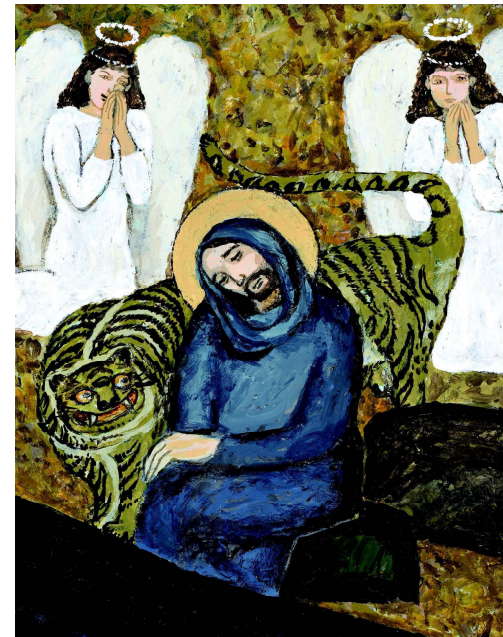
총무 박태주 로마노
(610) 212-9539

오늘의 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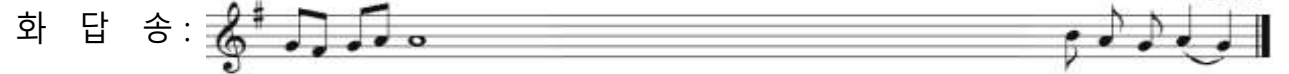
오늘은 사순 제1주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사막에서 부르짖는 교회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팔을 펼치시어, 말씀의 빵으로 우리를 길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감싸 주십니다. 우리가 절제와 기도를 통하여 끈질긴 악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그림 묵상

회개의 시작인 사순절: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짐승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천사들이 그분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바위 위에 고독하게 앉아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참회하고 속죄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의 때인 사순절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참으로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미연 소화데레사



제 1 독서 :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26,4-10
<선택받은 백성의 신앙 고백>



- ◎ 주님, 환난 가운데 저와 함께 계시옵소서.
- 지극히 높으신 분의 보호 아래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안에 머무는 이, 주님께 아뢰어라. “나의 피신처, 나의 산성, 나의 하느님, 나 그분께 의지하네.”◎
- 너에게는 불행이 다가오지 않고, 네 천막에는 재앙이 얼씬도 못하리라. 그분이 당신 천사들에게 명령하시어, 네가 가는 모든 길을 지켜 주시리라. ◎
- 행여 네 발이 돌부리에 차일세라,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받쳐 주리라. 너는 독사와 살모사 위를 거닐고, 힘센 사자와 이무기를 짓밟으리라. ◎
- 그가 나를 따르기에 나 그를 구하여 주고, 내 이름 알기에 나 그를 들어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면 나 그에게 대답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그와 함께 있으며, 그를 해방시켜 영예롭게 하리라. ◎

제 2 독서 :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0,8-13

<그리스도 신자의 신앙 고백>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복음 :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1-13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어, 유혹을 받으셨다.>

생명의 말씀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겨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시어 광야로 가십니다. 사십일 동안 머무시면서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세 가지 유혹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원수와 계속할 내적 투쟁을 상징적으로 비취줍니다.

예수님께서 허기가 극에 달하셨을 때를 맞춰 악마는 하느님과 예수님 사이의 조화를 깨뜨리려고, '너 하느님 아들 아니니? 빵을 만들어 먹어'라고 마음속에 떠올려 줍니다.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여, "사람이 빵만으로 살지 않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라고 하시면서 속삭임을 단호하게 떨쳐버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배고픔을 겪는 가운데, 아버지께 대한 믿음과 순명을 드러내는 것이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들로서의 권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를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지만, 또한 하느님의 종으로서 겸손과 순명 속에 머무르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실 영광의 길은 결코 받은 권능을 맘대로 사용하면서 자기 뜻을 펼쳐 나가는 길이 아니라, 하느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귀 기울여 듣고, 순명하고, 봉사하는데 사용하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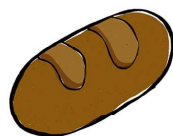
다른 두 가지 유혹, 즉 마귀가 또 하느님 흥내를 내며,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속삭입니다. 이 유혹에 말려들면 하느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게 되고 배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모두 다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지, 내 것은 아니다'라는 자각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주 너의 하느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루카 4,8)라고 단호히 그 생각을 떨쳐버리십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와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당신 신원과 권능에 관한 보장이 과연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계획과 뜻을 펼

쳐나가지 않고, 하느님께 봉사하고자, 삶의 주도권도 자기 가 움켜쥐지 않고, 하느님께 드리며 순종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제자들도 교회도 받을 것입니다. 특히 사순 시기 동안 성령께 의탁하며, 성경을 충실히 읽어 깨닫고, 기도함으로써 이 유혹들을 식별해 내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도록 노력해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를 얻으셨듯이, 우리도 끝내는 그렇게 될 것을 굳게 믿읍시다.

박일 알렉산델 신부 | 반포1동성당 주임

그림으로 보는 복음묵상



재판장님!

사실 빵은 죄가 없습니다.
그는 뜨거운 가마 속을 견디고
아름답게 변화했을 뿐입니다.
그가 굶주린 사람을 얼마나 많이 구했습니까?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표현해주었습니까?

빵은 죄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탐하는 인간의 마음이
죄로 물들었을 뿐.

'사람은 빵만으로 살지 않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루카 4,4)

임의준 신부 | 서울대교구 직장사목부 담당

말씀의 이삭

항상 주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성가를 부르게 된 것은 1984년 연말이었습니다. 사관학교 성탄 미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방문한 합창단원들의 아름다운 성가를 듣고 느낀 것이 너무 많아 주말에 합창단 연습실을 찾아갔습니다. 합창단의 연습을 뒤에서 앉아 듣고 있었던 저는 같이 노래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합창단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 합창단은 제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아퀴나스합창단입니다.

아퀴나스합창단은 성음악을 널리 알리기 위해 1977년에故 박고영 신부님께서 창단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한국교회에 많은 성음악을 소개했고 지금도 주님을 찬양하는 미사 봉헌과 정기적인 연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도 시절 주말이면 주어지는 금쪽같은 외박 시간을 아퀴나스합창단과 같이했습니다. 신부님께 많은 것을 배웠고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활동하고 있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막상 합창단원이 되긴 했지만 처음엔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가톨릭 성가나 생활 성가가 아닌 전통적인 교회음악을 주로 연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퀴나스합창단은 미8군 성당에서 성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일반적인 성가도 영어로 불러야 하고 라틴어로 된 고음역도 종종 불러야 했습니다. 제게는 정말로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비스럽고 성스러운 느낌이 드는 교회음악에 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매년 두 번씩 진행되는 사순 음악회와 연말 정기연주회도 비록 준비하는 힘들었지만 재미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저 제목만

들어보거나 어쩌다 한 번 들어 보았던 '메시아'나 '요한수난곡' 같은 음악을 전곡으로 연주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2년 전에 창단 50주년 기념으로 명동대성당에서 헨델의 '메시아'를 연주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많은 신자들이 오셨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의 연주 시간 동안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내용의 곡들이 연주되었고 마지막 곡인 '아멘'이 끝났을 때 관객 모두가 일어나서 환호와 격려를 보내주실 때의 감동은 아직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진심으로 전한 우리의 연주로 하나 되는 광경이었습니다.

단순히 신부님께서 정해주신 곡들을 불렀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전례에 필요한 곡들을 배워가는 과정이었고 지금도 그때의 가르침으로 제가 지휘하고 노래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라틴어로 된 곡들의 내용을 배우고 전례에 맞는 기도문의 내용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아퀴나스합창단에서 만나 30년을 훌쩍 넘은 시간 동안 같이 성가를 부르고 있는 아내와 지금까지 함께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항상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주님의 영광과 신비를 끝없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흠송과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겸손한 종으로 봉사하며 살아가길 힘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백윤형 알베르토
한국항공소년단 사무총장

기도묵상

기도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예수님에게 전념하는 영혼의 몰입입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할수록 기도도 더 잘하게 됩니다.

- 복자 샤를 드 푸코 -